진실 외면한 정치재판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한승헌 지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승만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59년 7월 31일 죽산 조봉암 진보당 당수(위원장)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남긴 말이다. 그의 억울한 죽음이 명예회복되기 까지는 50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 2011년 1월 20일 "조봉암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군부대의 영장 없는 체포와 불법감금을 통해 얻어진 증인 진술뿐이다"라는 요지로 종전의 사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승헌 변호사가 쓴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는 역사 속의 재판을 살펴본다. 여운형 암살사건과 반민특위 사건, 국회프락치 사건,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소설 '분지' 필화사건,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해방 이후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17개 재판을 역사의 법정에 다시 불러세웠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과 역사는 서로 맞물려서 작용과 반작용을 되풀이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정치적 사건의 재판은 역사의 연역과 귀납에 이용되는 중용한 사실(史實)로 꼽힌다. 그러기에 잘못된 재판은 그릇된 역사의 싹이 되고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재판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탐구하는 실증적 작업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독재정권은 정치적 라이벌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정적(政敵)이 죽산이라면 박정희·전두환의 정적은 김대중(DJ)였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DJ를 자택에서 연행해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간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로 조작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사형을 판결했다. 이후 2003년 1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고법에서 전원 (재심)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법살인'은 조봉암 뿐만 아니라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에서도 반복됐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18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5시 전격 교수형이 집행됐다. 당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3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 재심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책에서는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법부의 고뇌도 함께 읽힌다. '동백림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관여했던 두 법관은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데 분개해 사임하고 대법원을 떠났다. 또 10·26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고수한 한 판사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돼 고문을 받고 결국 사표를 써야했다.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죽산 조봉암 진보당 당수(위원장). 재심이 기각된지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50년이 지난 2011년에야 대법원은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저자는 "역사는 때로는 재판관도 압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명언을 들며 "권력의 이익과 눈치에 부응해 신성한 재판을 그르친 사법부는 그 부끄러운 과오를 통렬히 참회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 나라의 사법부가 위정자 내지 사회지배세력의 입김에 휘둘려 민주사법의 본질을 소홀히 하는 그 어떤 오루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창비·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조선시대 혁명적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

역사 콘서트 1·2

황광우 지음

1980년대 필독서 중 하나였던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소외된 삶의 뿌리를'의 저자는 정인이다. 그가 황광우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쓴 '철학 콘서트' 시리즈는 30만부 이상 팔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년 전부터 한권의 한국사를 쓰는 걸 필생의 과제로 삼았던' 황광우가 역사서를 펴냈다. 두 권 분량으로 나온 '역사 콘서트-황광우와 함께 읽은 조선의 결정적 순간'은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까지 시대를 뒤흔들고 일으켰던 혁명적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을 흥미롭게 서술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난중일기', '성호사설', '열하일기' 등 선비들이 남긴 문집을 뒤지고 퇴계 이황의 편지 등을 꼼꼼히 살핀 저자는 왕과 선비의 역사 뿐 아니라 평민과 노비, 여성 등 민중의 역사까지를 두루 아우른다.

두 권의 책은 '혁명과 개혁', '대왕 세종', '훈구와 사림', '왜란과 호란', '영조와 정조', '500년 왕조의 파국'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조선 전기를 다룬 1권은 조선 창업과 수성을 담고 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을 시작으로 수성의 시대인 세종기, 붕당시대가 다뤄진다. 9년간의 유배와 유랑 끝에 이성계의 막사를 찾은 정도전, 과거에서 묻고 지방 관리에게 묻고 17만명 농민에게 다시 물은 세종, 죽음 앞에서 인두를 더 뜨겁게 달궈오라 말한 사육신 성삼문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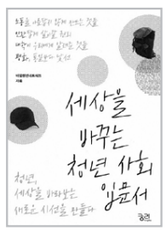
후기를 다룬 2권은 조선의 부침과 파국을 담고 있다. 왜란과 호란이라는 거대한 외세 침략과 민중의 저항, 백성을 위한 조선을 건국하려 했던 영·정조의 고뇌와 재기, 파국으로 치달은 조선왕조의 마지막이 흥미롭게 소개된다. 왕명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명장 이순신, 직접 농사를 짓고 개혁안을 내놓은 이이, 단 한명의 백성도 공짜로 부리지 않고 화성을 세운 정조, 그리고 시대를 책임지고자 일어선 무수한 민중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의 통찰과 함께 저자 특유의 맛깔스런 글쓰기가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생각정원·각권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세상을 바꾸는 청년사회 입문서=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는 이 없던 '응답하라 1998'의 주인공들은 약 10년 뒤, 한국사회에 몰아닥친 외환위기의 풍랑 속에 쓰러져갔다. 이웃, 나눔의 가치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무한경쟁, 성공제일주의가 대체해 버렸다. 예전에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집단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요즘은 측은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청년 세대와 함께 세상을 보는 시선을 공유하기 위해 2015년에 창립한 단체로, 청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궁리·1만5000원〉

▲나라타주=일본의 천재 작가 시마모토 리오의 감성 연애소설. 고등학교 시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던 하야마 선생님과 이제는 대학생이 된 이즈미, 두 사람의 가슴 아픈 로맨스가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영상미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그려진다. 일본 출간 당시 쟁쟁한 일본 작가들과 언론의 극찬을 받았으며 많은 독자들이 "지금까지 읽은 최고의 연애 소설"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은 작품이다. 〈블루엘리펀트·1만3000원〉

▲와이 넛지?=세계적인 '넛지'의 공저자 캐스 선스타인이 법 이론과 행동 경제학을 결합해 논쟁적인 이슈를 다룬다. 2012년 예일대 로스쿨에서 행한 일련의 혁신적이고 통찰이 넘치는 강의에서 저자는 비만, 흡연, 건강보험, 식품안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한다. 선스타인은 새로운 형식의 개인주의를 주장하는데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택 설계, 즉 넛지를 활용하자는 의도다. 〈열린책들·1만5000원〉

▲가능세계= 201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백은선의 첫 시집. "긴 호흡을 변화시키는 유려한 리듬"과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대결의식"으로 장차 "장시의 새로운 미학"을 보여줄 것이라는 당시의 예측에 손색이 없는 시집이라는 평이 따른다. 무엇보다 오랜 아픔인 기억과 갓 태어난 슬픔인 사랑을 기반으로 불가해한 것에 도달하기 위한 시인의 시적 실험은 '지금'을 만나 어떤 시보다 유효해진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생사의 강=중국의 대표적인 추리작가 차이쥔의 신작. 작품 전체 누계 판매부수 1000만부를 기록했으며 9년 연속 중국 미스터리 소설 베스트셀러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기상천외한 상상력, 독자를 매료시키는 서스펜스, 치밀한 논리로 유명하며 사회병폐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한스미디어·1만5800원〉

어린이 책

▲어느 소년병 이야기=6·25 전쟁 중 작가가 소년으로 겪은 체험을 동화로 창작했다. 북한군이 점령한 작은 면소재지 마을을 배경으로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족들이 겪는 고난을 주인공(장수)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렸다. 면서기였던 아버지는 북한군이 들어오자 집 뒤 옥수수밭에 있는 방공호에 몸을 숨긴다. 장수는 가족과 아버지를 연결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북한군 동태를 살피고, 북한군 소년병 최일수는 장수네 집 감시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장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좋은 꿈·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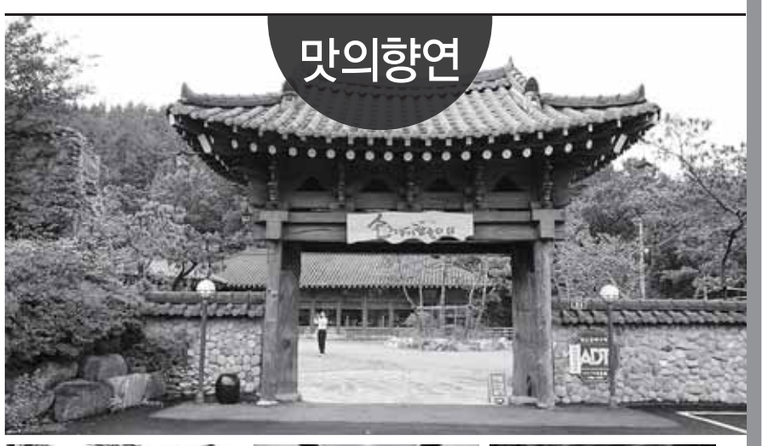
▲프립마을의 몹시 집요한 개퍼들='개퍼'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생물로 야구공만 한 크기, 오렌지빛 몸, 여러 개의 눈을 지니고 있다. 개퍼는 특히 염소를 좋아해 근처에만 가면 신이 나서 소리를 질러댄다. 동화는 영미권에서는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담푸스·1만800원〉

▲신발 신은 강아지='그림책 마을'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미니와 엄마가 길에서 우연히 신발을 신고 있는 강아지를 만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미니는 주인을 잃어버린 듯한 강아지를 데려가 키우자고 보채고, 엄마는 신발을 신은 것을 보니 주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망설인다. 〈스콜라·1만1000원〉

▲나는 혼자가 더 편해=주인공인 초영이는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싶은 아이다. 선생님이 "오늘은 짝꿍이랑 한 조로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할 때도 입을 삐죽 내민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저자는 친구와 어떤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작품을 썼다고 한다. 〈리틀씨앤톡·1만1000원〉

굿모닝타운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카페, 미용실, 병원 적합
● 전용 289㎡ (87평) 2/3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 (대출 5억) 실 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대출 20억) 실 투자 6억5천만원
무인텔 매매
화순 도곡 온천관광 단지내
최근 올리모델링, 성업중
● 객실 28개 및 내 외부 올 리모델링
● 매 23억 (대출 14억5천) 실 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